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평 일	예비자교리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새벽 6:30 저녁 19:00 (목) 오전 10시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새 신자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12월12일(토)에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7명의 새 신자들이 오늘 교중 미사 중에 처음으로 성체를 모십니다.

새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의 지침
- 비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20인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참석 못하는 신자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오늘은 자선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판공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안 넣으신 분은 판공 성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대림·성탄 교리문제지(골든벨) 및 대림 신앙실천표(대림저금통) 제출 안내 *

- 제 출 : 12/24 저녁 7시 성탄 밤미사 전
- 시 상 : 대림절을 성실하게 준비하신 분에게 성탄절 교중 미사 중에 시상을 합니다.

◎ 대림절 판공성사 안내

대림절 판공성사는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지역별 집중 판공성사는 없습니다.

※ 본인의 고해만 간략하게 합니다.

◎ 성탄,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 (목)	아침미사	6:30(평일 미사)
	성탄 밤미사	19:00/21:00, 19:00(중·고등부,소성전)
25일 (금)	성탄 대축일	10:30, 12:00, 16:00(유·초등부) 19:00, 19:00(청년, 소성전)
	아침미사	6:30(평일 미사)
31일 (목)	송년미사	20:00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2:00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2021년 1/1(금)		

◎ 청년 분과

• 구상(구로3)청년 비대면 대림피정

- 일 시 : 대림시기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9시45분
(11/28, 12/5, 12/12, 12/19)
- 신 청 : <http://g3cn.page.link/2021-advent>
- 문 의 : 정상범 야고보(010-7275-4253)

◎ 다음주일 (12/2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2월 2일 ~ 12월 8일)

• 교 무 금		8,900,000 원
• 주일헌금		3,828,000 원
• 성탄 위문금 2차헌금		615,000 원
• 감사헌금	최은화 6만원 익 명 1만원 모경숙 2만원 최경진 10만원 김광청 5만원 정애자 10만원 이진욱 10만원 박영자 10만원 익 명 5만원 김재민 10만원 신중구 5만원 익 명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13	권태희	최영만 신종구 김영균 김진수	허문석 김강자
12/20	박혜선	심재순 임공섭 도현만 최상림	최웅조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2/13	오광운	박용환	이계명 장인홍	박승환	이성일
12/20	최창열	장인홍	최승일 김광수	최상남	김인기

◎ 주보 7면

- 거리두기 2.5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거리두기 2.5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2/13	16~20 구역	21~24, 구역 외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2/20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구역 외	1~ 5 구역	6~11 구역

- 구역 외 신자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당과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명의를 변경하실 분은 **12/25(금) 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으로 납부자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2016년 이후에 제출하신 분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7. 역사에 의미와 발전이 있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진 구원 (궁극적인 완성, 완전한 행복)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이 구원은 인간을 모든 차원에서 해방합니다. 곧 육신과 정신에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상의 역사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영원히 해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안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세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상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모든 정치적인 이념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낙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세상을 등한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현실을 의롭게 만들고 사랑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성될 내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8. 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인 하느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얻게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인간은 내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외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시 새롭게 추구해야 할 마음의 회개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비로소 우리는 제도와 체제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19. 인간이 짓는 죄의 핵심에는 왜 인간의 자기 소외가 있나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 위축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자유롭게 우리존재의 의미와 근원에 다가가는 것, 말하자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소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와 생산, 기술적 생존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곳에서는 연대성과 인간애가 결핍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